



돼지유행성 설사병 백신 이달말부터 공급

- 양돈장 방역 큰 기대

돼지유행성설사병(PED)백신이 12월말경 양돈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여 질병방역에 큰 도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이재진)는 11월 24일부터 일주일간 국내 백신제조회사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 제조기술을 전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위생연구소의 강영배 과장(해외전염병과)에 따르면 지난 8일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대성미생물연구소, 녹십자수의약품, 한국미생물연구소, 한국마이엘화학 등 백신제조회사 실무자를 소집,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제조에 따른 기술전수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위생연구소는 '92년에 원인체 분리에 성공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양돈장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어 백신접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백신제조에 필요한 기술전수를 조기 실시하고 긴급 방역조치 차원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축위생연구소는 돼지유행성설사병백신을 ▲ 국내 분리주의 계대 및 증식 ▲ 계대별 자돈접종시험 ▲ 계대별 병원성 및 면역형 성능 조사 ▲ 백신후보주 선발 등을 거쳐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축산정화조 기술 대만에 수출

- 로열티 7년동안 매년 50만달러

미생물을이용한 축산정화조(KDST) 기술이 대만으로 수출돼 축산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일 '92년 환경연구센터의 박완철박사팀이 개발해 상업화에 성공한 축산

정화조 기술을 대만의 에어킹사에 계약금 15만달러와 총매출액의 5% 기술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술판매 계약금 15만달러 이외에 향후 7년동안 매년 50만달러씩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축산폐수로 수질오염이 큰 대만뿐 만 아니라 축산폐수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기술수출의 가능성을 높지게 됐다.

이외함께 한국과학기술원은 일본에도 중소농가에서 축산폐수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이용한 축산정화조기술 이전을 요청,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축산선진국으로부터 많은 기술료를 지불하고 환경 관련 기술을 도입해 왔는데 이번에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축산정화조가 해외수출을 나설 수 있게 돼 국내 환경관련 기술개발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철박사팀이 개발한 축산정화조는 1억2천만원의 연구비를 투입, 2년여의 연구끝에 지난해 상업화에 성공해 현재 충남 부여군 소재 중소기업체에서 생산, 전국 5천여 축산농가에 보급, 가동중에 있다.

돼지고기등 8개 농수산물 수출보험 적용

- 11월 4일부터 시행

돼지고기, 사과, 화훼, 굴 등 8개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해 수출보험이 적용된다. 수출보험공사는 11월 3일 농수산물이 수출계약 체결후 작황부진이나 운송중 변질 등으로 인한 손해위험을 덜 수 있도록 농수산물 수출보험을 새로 만들어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수출업자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일정비용을 지출하고

도 수출 증진효과가 당초 계획만큼 나타나지 않아 손실을 입게 될 경우에 대비한 시장개척보험도 신설했다.

수출보험공사는 농수산물수출보험과 시장개척보험, 단기수출보험 등 3개 보험종목을 신설하고 이용실적이 미미한 일부 보험은 폐지하며, 해외투자보험, 해외공사보험 등에 대한 담보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보험제도 전반을 개편,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우선 돼지고기, 사과, 화훼, 밤, 배, 버섯, 굴, 김 등 8개 품목에 대해 수출보험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옥수수 풍작

-2억 4천 3백여톤 이룬듯

미국의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옥수수 주산지인 아이오와주의 금년도 옥수수 수확이 평년 보다 급속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미농무성(USDA)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아이오와주의 금년도 옥수수 수확은 평년의 69%보다 빠른 75% 정도 완료했다는 것이다.

특히 10월 마지막 주에는 날씨가 좋아 많은 옥수수가 수확되어 산지 엘리베이터 주변에 노적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생산농민이 신고 옥수수를 부리는데 6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사상최대를 보였던 '92년도의 2억4천70여만톤 보다 무려 3백여만톤이 많은 2억4천3백70여만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대상자선정 진통

농림수산부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에 재벌그룹 계열의 유통업체, 백화점, 축산전문기업들이 참여를 희망

하고 있어 이의 대상자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이달 중순안으로 사업능력, 양축농가와 계약 생산체계, 구축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지원기준이라든지 해야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지 못하였고 특히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단체가 9개 업체나 되고 모두 충분한 사업능력이 있는 업체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미 올해 3개소에 지원할 자금 1백92억원을 축발기금에서 확보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해 한우·돼지고기 유통량의 30~40%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질병발생 농장 건강축 도축 출하 가능

- 정부, 가축전염병 발생신고 적극유도키 위해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질병농장의 동거 가축중 환축이외의 건강한 가축은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질병이 발생한 농장의 환축이외 동거가축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등의 조치로 양축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전염병 발생 미신고에 대한 벌칙이(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과중하여 일선 행정기관에서 법집행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과태료로의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주요 질병(제1종 전염병)에 한하여 격리, 이동 조치하고 기타 전염병은 발생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양축농가들이 질병발

생 신고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돼지 도축환경, 육질유전자변이에 영향

- 네델란드 동물생산연구소 발표

네델란드의 동물생산연구소는 돼지들이 우리속에 갇혀서 운송되는 등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상황들이 돼지 고기 육질의 유전적 변이가 구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연구소 실험결과, 돼지의 유전적인 배경이 돼지고기 품질, 그중에서도 색깔과 수분함유량의 변화에 약 20% 정도의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도축장에서 여러가지 도축방법으로 도축된 돼지들의 육질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리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말하고 있다.

미국산 육류수입 62% 증가

- 작년보다는 71% 늘 전망

올들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육류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10월 21일 미국육류 수출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미국산 육류 수입액은 모두 1억2천7백58만7천달러로 작년 동기의 8천1백96만1천달러보다 62.6%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로는 쇠고기 관련제품의 수입액이 62.3% 늘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68.3% 증가했다.

돼지고기 제품의 경우 냉동정육, 햄, 소시지 등 가공품이 4백47만9천달러, 족발 등 부산물이 1백16만7천달러 어치가 각각 들어왔다.

이같은 육류수입의 급증으로 연말까지 미국산 육류의 총수입액은 작년보다 71% 가량 늘어난 2억9천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4 농민의 날」 행사 개최

- 4개항 결의문 채택

농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 강성원)는 지난 11월 11일 혜화동 홍사단 강당에서 「'94 농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농민의 날 기념일 제정 촉구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를 비롯, 이회천·이길재의원 등 국회의원과 전국농민단체장 및 농민지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제1부 농민의 날 기념식, 제2부 농민의 날 제정촉구, 추곡 1,200만석 수매 및 직접소득 지불 제도 관철 등을 위한 결의대회, 제3부 국제 농업정세 보고회(단국대 장원석 교수)를 가졌다.

돈육 대일수출 회복세

- 8월에 비해 8.3% 증가

산지돼지값이 90kg기준 한마리당 14만원대로 내려가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9월부터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립동물검역소가 최근 검역실적을 기준으로 집계한 9월 한달동안 대일 돼지고기 수출물량은 8백22톤으로 8월의 7백59톤에 비해 8.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일 돼지고기 수출 실적은 7천7백8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의 8천4백56톤보다 7.9%가 줄어들어 올해 대일 돼지고기 수출목표인 1만4천톤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돼지고기 수출물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최근들어 돼지고기 국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산지 출하물량도 늘어나는 등 돼지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료원료값 오름세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가격이 큰폭의 오름세를 나타

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배합사료 주원료 가격이 전년 대비 0.98%~33.88%의 큰 오름세를 형성했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톤당 옥수수가 지난 9월 현재 1백 19달러28센트에 거래, 전년 동월에 비해 9.0%가 올랐으며 밀을 1백9달러72센트로 전년 동월 대비 3.22%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두박의 경우 수입산은 3.23%, 국산은 0.98% 각각 오름세를 형성했다.

이밖에도 9월현재 전년동월 대비 면실박 22.03%,채종박 15.84%,단백피 7.98%, 소맥피 4.47%, 타피오카 33.88%, 당밀 23.27%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한 원료수송비 역시 6천3백54원으로 전년 동월 5천 4백36원에 비해 1천4백68원이 올라 30.01%의 증가율을 보였다.

분해성 멀칭 필름 개발

- 농진청·유공 공동으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와 유공 고분자연구소는 지난 10월 15일 기존 토양피복용 필름을 햇빛과 토양 미생물을 이용, 5년 이내에 분해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분해성 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연구소 폐자원 연구실장(정광용)은 “기존 토양피복용 필름은 분해기간이 2백여년이나 걸리고 특히 임대한 땅은 작물재배뒤 필름을 걷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밭 전체가 못쓰게 될 지경이 되고 있으나 이번 분해성 필름의 개발로 토양 등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비닐 수거가 필요없어 인력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WTO공식 출범일 12월 8일 결정

- 내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 출범 예정

GATT의 대체기구인 세계무역기구의 공식 출범일을

오는 12월 8일 결정, 내년 1월 1일이나 6월 1일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1백20개 회원국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29개국에 불과하지만 내년초 출범을 가능케 할 만큼 충분한 국가들이 협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보고 있다.

햄·소시지 등 가공육과 외식 수요 증가

- 일 농수성 발표

일본 농수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의 돼지고기 소비경향은 간편한 가공육과 외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의 돼지고기 소비가 가정소비 40.4%, 가공용 30.2%, 외식용 등 기타가 29.4%로 나타났다.

지난 20년 동안의 기록과 비교, 가정 소비량은 18% 감소한 반면 가공용과 외식 등을 각각 11%, 8%가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 가공식품은 햄·소시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돼지사육두수 감소세

- 지난해 비해 3.2% 감소

94년 7월말 현재 덴마크의 사육돼지 두수가 1천89만두로 작년 동월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사육돼지 두수를 좌우하는 암돼지 숫자는 '93년에 비해 0.3% 감소했는데 지난 4월통계 때에는 감소율이 1.2%였었다.

이러한 사육돼지두수 감소세는 최근의 양돈업계 수익률 하락보다는 작년도의 사육돼지 규모가 4, 5월의 도축장 노동자 파업과 그로인한 출하적체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